

오카야마 모모타로 이야기

기비쓰히코와 우라

아무라 레이코 작, 나쓰메 쇼고 그림



기비지
가이드북

모모타로 이야기와 함께 돌아보는 기비지



먼 옛날,
아직 오카야마평야가 기비의 고지마에
둘러싸인 ‘기비의 아나우미’라고
불리는 내해이던 무렵.

오카야마 지역에는 기나이, 이즈모와 함께
당시 일대 세력을 떨치던 기비국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기비국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기비지는 ‘모모타로 전설’의 발상지이며,
지금도 ‘모모타로’에 관련한
지명이나 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유구한 세월을 거쳐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와 함께
기비지를 둘러봅시다.

이 이야기 속에 첨부한 번호는 권말의 관광 지도와 링크되어 있습니다.
관광 정보와 함께 이야기를 즐겨 보십시오.



오카야마 모모타로 이야기

기비지
가이드북

기비쓰히코와 우라

아무라 레이코 작, 나쓰메 쇼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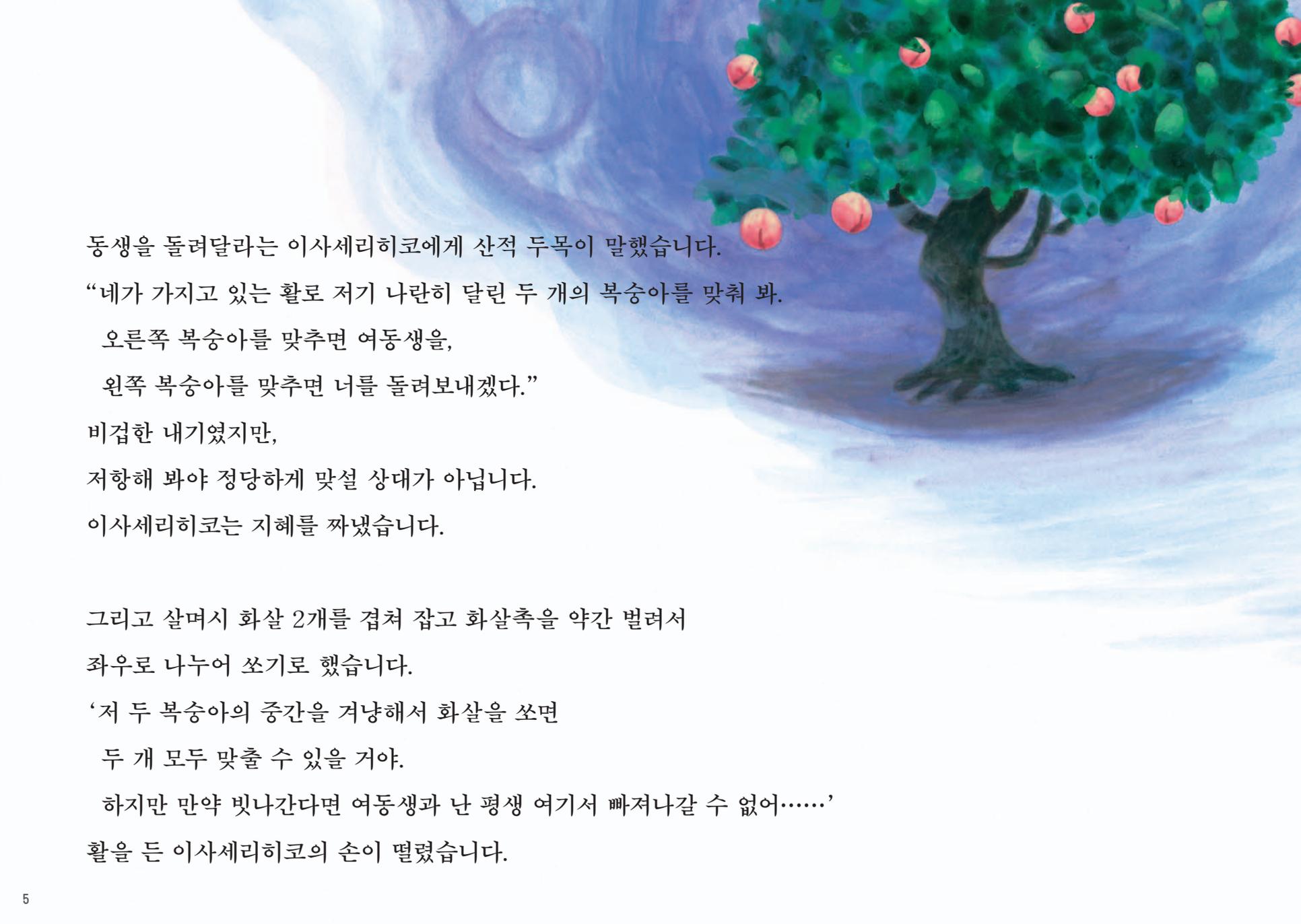




이 나라가 통일되기 전인 먼 옛날의 일.
야마토국에 이사세리히코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른을 압도하는 활 솜씨를 지닌
아주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산적에게 끌려가자,
이사세리히코는 활을 들고 혼자서
산적 소굴로 갔습니다.



동생을 돌려달라는 이사세리히코에게 산적 두목이 말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활로 저기 나란히 달린 두 개의 복숭아를 맞춰 봐.

오른쪽 복숭아를 맞추면 여동생을,

왼쪽 복숭아를 맞추면 너를 돌려보내겠다.”

비겁한 내기였지만,

저항해 봐야 정당하게 맞설 상대가 아닙니다.

이사세리히코는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화살 2개를 겹쳐 잡고 화살촉을 약간 벌려서

좌우로 나누어 쏘기로 했습니다.

‘저 두 복숭아의 중간을 겨냥해서 화살을 쏘면

두 개 모두 맞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빗나간다면 여동생과 난 평생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활을 든 이사세리히코의 손이 떨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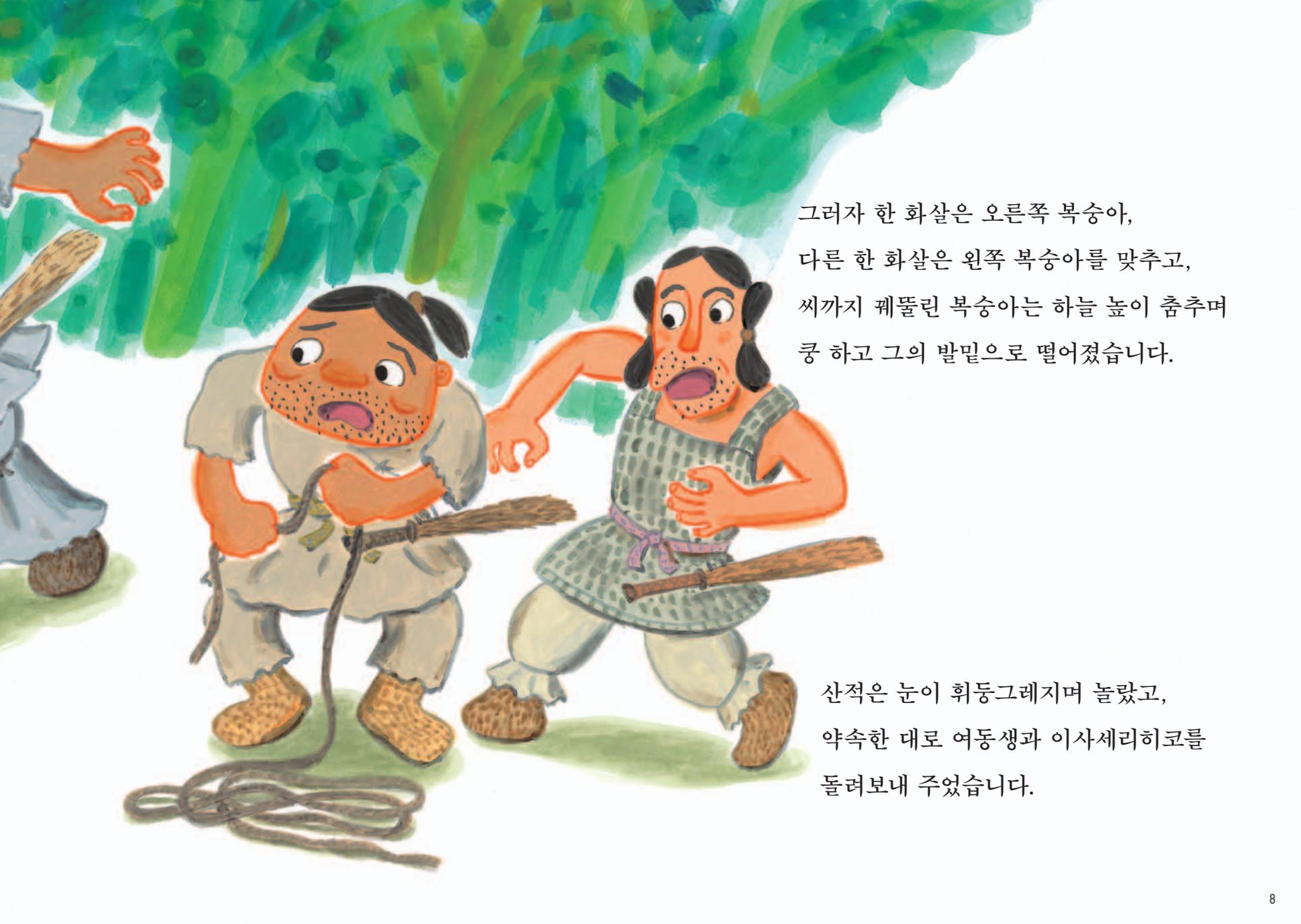


그때 문득 기비국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복숭아를 바치러 온 한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숭아 열매에는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산해진미로
넘쳐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복숭아 덕분입니다.”

이사세리히코는 복숭아의 신비로운 힘이
나쁜 산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한 화살은 오른쪽 복숭아,
다른 한 화살은 왼쪽 복숭아를 맞추고,
씨까지 꿰뚫린 복숭아는 하늘 높이 춤추며
쿵 하고 그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적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고,
약속한 대로 여동생과 이사세리히코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사세리히코는 그때 맛춘 복숭아 씨를
소중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집 문 앞에 심고
직접 물을 주며 키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적 삼아 항상 품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이사세리히코에게 복숭아는 자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자국에 가져다 준 기비국에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야마토국 사람들은 ‘모모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별칭은 산적과의 내기에서 이긴 이야기와 함께
멀리 기비국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모모타로는 늙름한 청년으로 성장하였고,
활 솜씨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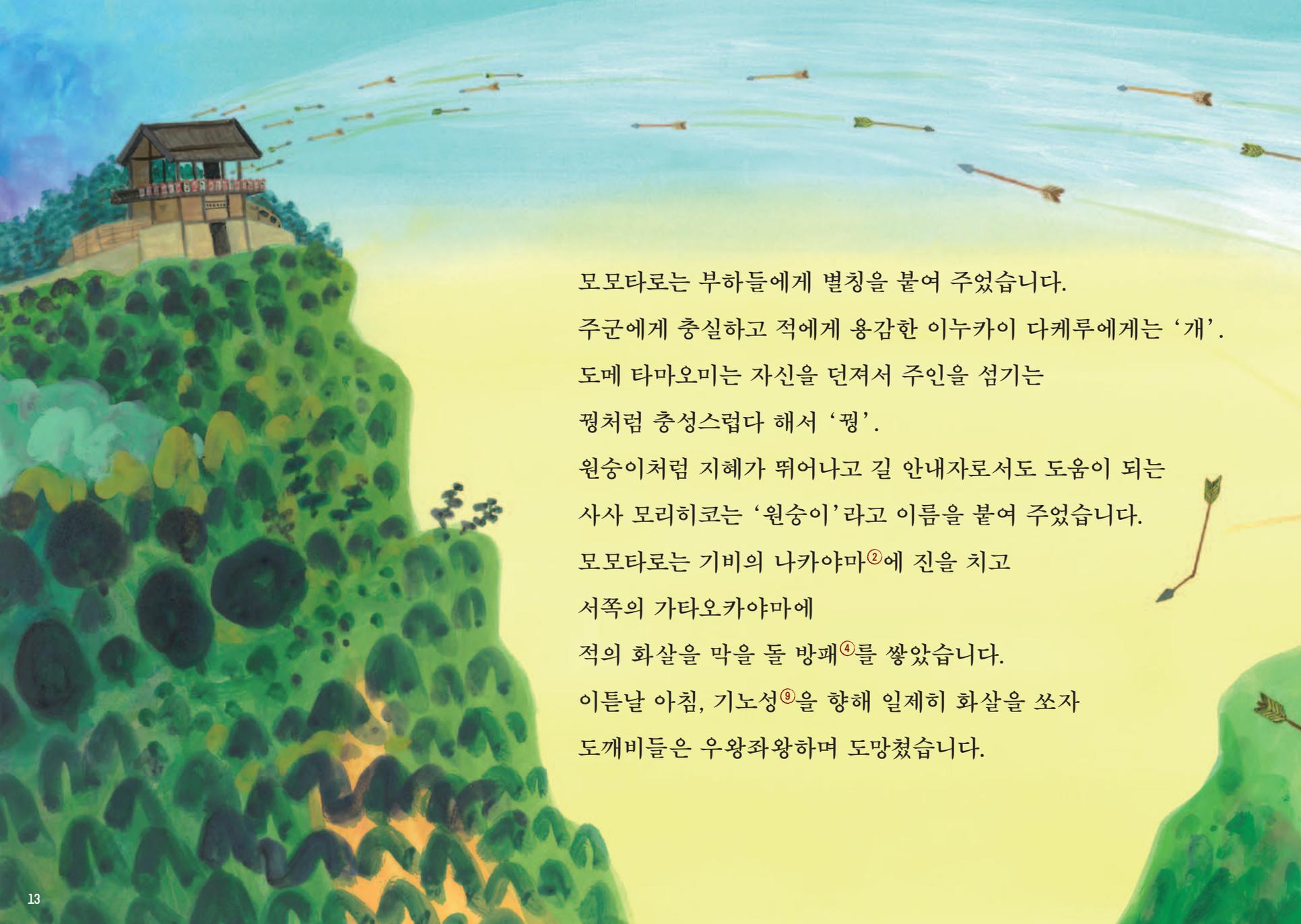
‘최근 기비국에 무서운 도깨비들이 날뛰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야마토국까지 들려 왔습니다.
도깨비는 모두 놀랄 만큼 거구인 듯하고,
특히 ‘우라’라고 불리는
우두머리 도깨비는 키가 4미터를 넘고,
눈은 핏빛으로 번득이며,
머리카락은 붉은 털로 꼬불꼬불 말려 있어
보기에 도 험상궂다고 합니다.
빛추 니이야마^⑧ 산꼭대기에 살며,
바다를 오가는 배를 약탈하거나 마을 여자들을 끌고가
술에 삶아 먹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를 도깨비 성,
‘기노성(鬼ノ城)’^⑨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도깨비를 물리치기 위해 저를 보내 주십시오.
기비국은 우리나라에 복숭아를 가져다 준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날뛰는 도깨비들을
결코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너라면
반드시 도깨비의 목을 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버지 대왕은 모모타로에게 멋진 활과 화살,
뛰어난 부하들을 주어 기비국으로 보냈습니다.



모모타로는 부하들에게 별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주군에게 충실하고 적에게 용감한 이누카이 다케루에게는 ‘개’.
도메 타마오미는 자신을 던져서 주인을 섬기는
핑처럼 충성스럽다 해서 ‘핑’.
원숭이처럼 지혜가 뛰어나고 길 안내자로서도 도움이 되는
사사 모리히코는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모모타로는 기비의 나카야마^②에 진을 치고
서쪽의 가타오카야마에
적의 화살을 막을 돌 방패^④를 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노성^⑧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쏘자
도깨비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쳤습니다.





모모타로와 우리의
일대일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모타로와 우리가 쏘는 화살은
모두 공중에서 부딪혀
야구이노미야[®]로 떨어졌습니다.

모모타로의 머릿속에 문득 두 개의 복숭아를 맞췄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모타로는 야오키이와^③에 화살을 내려놓고,
품속에 넣어둔 복숭아 씨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개의 화살을 잡아
활시위에 메기고 힘 주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한 화살은 바다에 떨어졌지만,
다른 한 화살은 보기 좋게 우라의 왼쪽 눈을
꿨습니다.

우라의 눈에서 흘러 내린 피가
지스이가와 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라는 양손을 번쩍 들고 발을 세계 굴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빨간 꿩으로 변신해서
산속으로 날아 갔습니다.
모모타로도 매로 변신해서 뒤쫓아 갔습니다.
거의 따라잡을 즈음 붉은색 꿩을 나뉘채려고 하자,
이번에는 잉어로 변해서 지스이가와 강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모모타로도 지지 않고 가마우지가 되어
잉어를 뒤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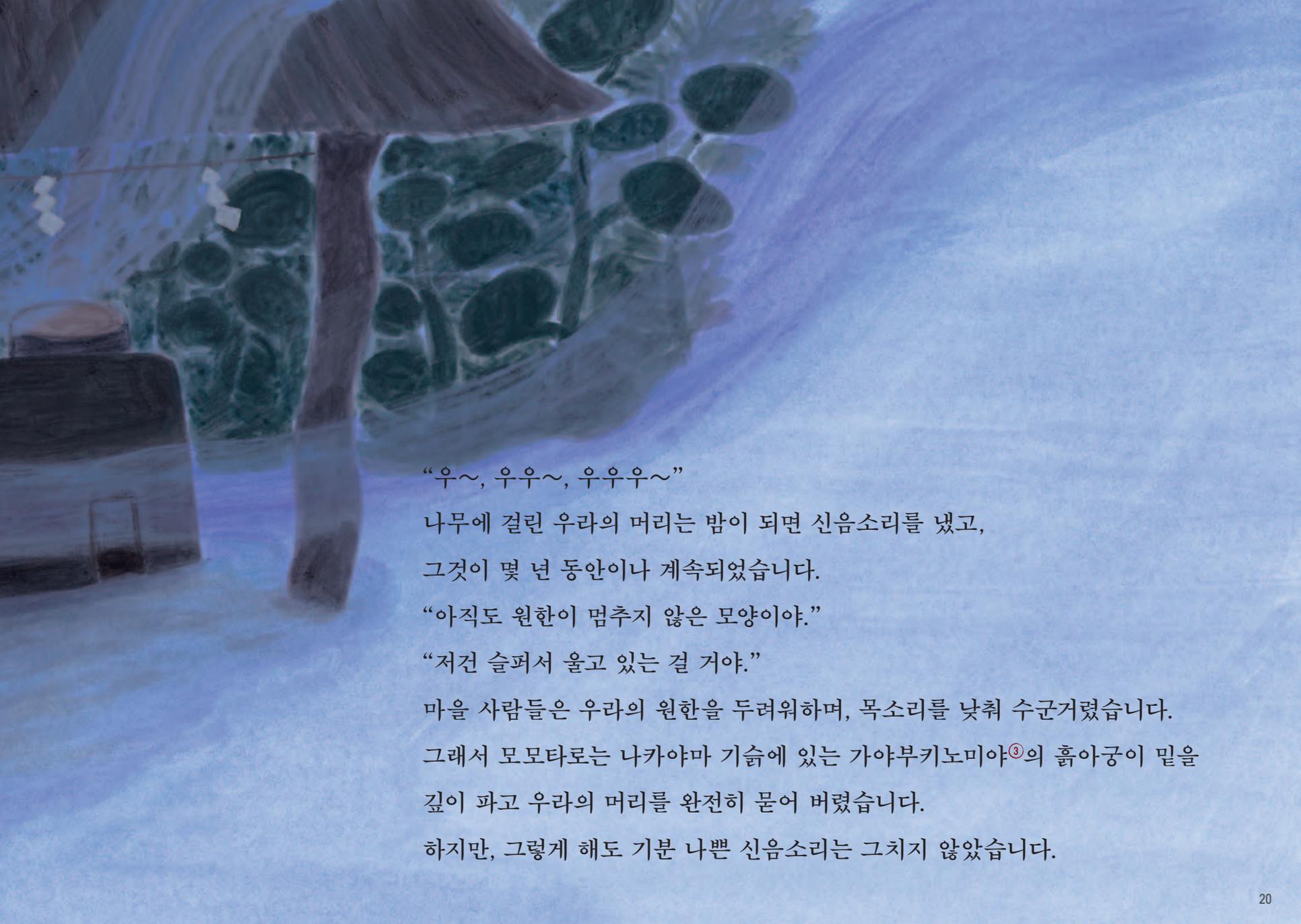
그리고 잉어를 붙잡고 힘 있게 물었습니다.

잉어는 몸이 깊숙이 뜬겨서
마침내 기운이 떨어졌습니다^⑤.

아카하마로 끌어올려진 잉어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모타로는 우리의 목을 치고,
그 머리를 굽은 막대기에 꿰어
고베노사토에 있는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우~, 우우~, 우우우~”

나무에 걸린 우라의 머리는 밤이 되면 신음소리를 냈고,
그것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직도 원한이 멈추지 않은 모양이야.”

“저건 슬퍼서 울고 있는 걸 거야.”

마을 사람들은 우라의 원한을 두려워하며,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모모타로는 나카야마 기슭에 있는 가야부키노미야^③의 흙아궁이 밑을
깊이 파고 우라의 머리를 완전히 묻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기분 나쁜 신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밤의 일.
모모타로의 꿈에 우라가 나타났습니다.
“모모타로, 나는 도깨비 따위가 아니야.”
꿈속에서 우라가 말하길——.
그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국의 왕자였으나,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 져서
부하들과 함께 이 나라로 피신해 왔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기비의 아나우미까지 흘러 왔지만,
어부들로부터 도깨비로 오인받고 폭력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도망쳐서
니이야마^㉔의 산꼭대기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㉕.





“하지만 너희는 여자들을 끌고가서는
술에 삶아 먹지 않느냐?”

“감히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니이야마^⑥의 산기슭에 아조마을^⑦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저기에 가 보면 알 것이다.”

모모타로가 아조마을^⑦에 가자, ‘우라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조오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니이야마^⑧에서 꿈의 습격을 받을 뻔 했는데 우리가 구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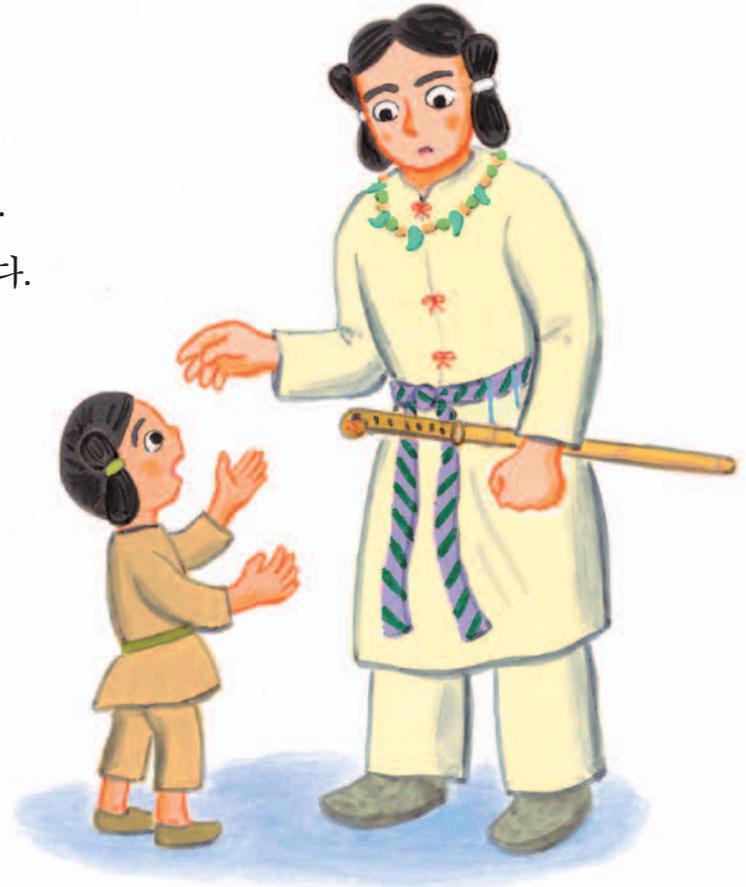
그 후 그는 우리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물로 마을의 먹을 것을 가지고 가면, 우라는 답례로 자신이 만든 철제 팽이나 호미, 작살이나 추와 같은 농기구나 어구를 주었습니다. 아조오는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나눠 주고 다녔습니다.

“도깨비가 만든 거라 기분 나빠.”

처음에는 외면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그 도구를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 우리가 만든 도구는 지금까지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아 작업이 부쩍 빨라졌습니다.









아조오의 누나인 아조히메도

동생과 함께 니이야마^⑧에 다니다 보니 우라와 친해졌습니다.

“우라 씨는 내가 만든 수수경단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대.”

아조히메는 동생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수수경단을 듬뿍 만들어 신이 나서 우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우라와 아조히메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우라 씨는 아직 한 번도 산에서 내려간 적이 없죠?

우리 마을에 꼭 한 번 와 보세요.”

“하지만, 아조마을^⑦ 사람들은 나를 도깨비라고 무서워하지 않소?”

“아니에요. 지금은 모두들 당신이 만들어 준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감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부부의 맹세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조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된 모모타로는
자신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조히메나 아조오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기비국으로부터 희망의 빛을 빼앗아 버렸구나.’

모모타로가 한탄하는 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어디선가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모모타로, 이제야 진실을 안 것 같군.”

“우라이군. 필시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아니. 네가 나를 물리친 것은 기비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겠지.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소.”

“너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군.”

“그렇지. 우리가 만약 다른 형태로 만났다면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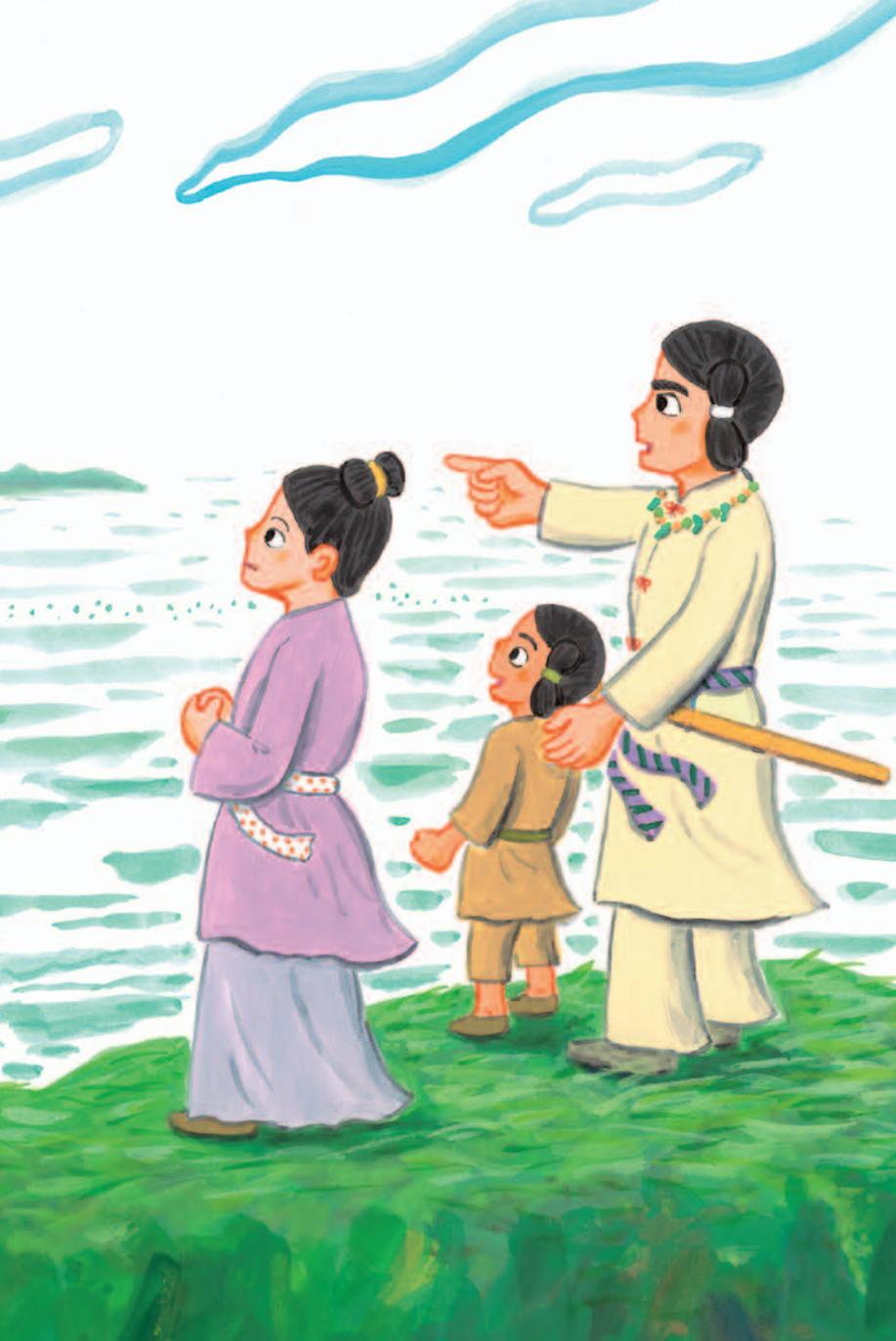
“알קות은 운명이군.”





모모타로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묻혀 있는 이 가야부키노미야^③의
아궁이 불로 아조히메가 밥을 짓도록 해 줘.
그러면 언제나 내가 여기서 아내를 지켜볼 수 있지.
나는 세상의 길흉을 알려 주는 점을 칠 거야.
행복이 찾아올 때는 이 술을 풍요롭게 울리고,
재난이 있을 때는 아주 거칠게 울려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 주겠어^③.”
“알았어. 나는 네 뜻을 이어서
평생 이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그 증거로
오늘부터 난 기비라는 두 글자를 따서 ‘기비쓰히코’라고 부르겠어.”
“기비쓰히코라... 앞으로 너의 활약을 지켜보겠다.”





기비쓰히코로 이름을 바꾼 모모타로는 우라와의 약속대로 그의 일생을 기비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바쳤습니다.

—지금 기비쓰히코는 아조히메와 아조오와 함께 니이야마^⑧ 산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보라. 저 바다 너머에 내가 태어난 야마토국이 있다.

언젠가 이 나라와 야마토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두 나라 간에 거리감 없이 더욱 크고 풍성한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우라와 내가 꿈꾸는 목표이다.

아조히메, 아조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와 주겠지?”

“네, 기꺼이.”

나라 세우기를 굳게 맹세하는 세 사람을

우라가 하늘 위에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0 **이와야테라 절·도깨비 돌집 P21**

산으로 도망친 우라가 정착한 곳

8 **니야마·도깨비 숲 P11-21-23-26-30**

이야기 중에 우라가 마을 여자들을
끌고가 숲에 살아 먹었다고 하는 숲

9 **기노성 P11-13**

기노조잔 산정 일대에
우라가 쌓은 산성

7 **아소신사 P22-23-26**

아시모리

야구이노미야 P15

6 **아카하마 P18**

아카하마 P18

눈에서 흘러내린 우라의
피가 바닷가를 붉게 물들여
이 이름이 붙은 아카하마(赤浜)

지스이가와 강 P16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은
우라의 피가 흘러는
지스이가와 강

고이쿠이신사 P18

잉어로 변한 우라를
가마우지가 된
기비쓰히코가
잡아 먹은 곳

오카야마 모모타로 이야기

기비쓰히코와 우라 무대 지도

기비쓰히코와 우라의 이야기, 어땠습니까?
오카야마시의 서부에서 소자, 구라시키시까지 동서 약 20킬로미터에 펼쳐지는
기비지 지역에는 이 이야기에 관련된 지명과 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돌아보고 옛 기비국을 떠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동차로

한나절 (6시간) 코스



기비쓰히코가 쓴 화살과 우리가 쓴 화살이 공중에서 부딪혀 떨어진 곳

빗줄 디카베쓰

기비지 자전거도로

73



다테쓰키 유적 P13
기비쓰히코가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쌓은 돌 방패

기비쓰신사 P16-20-28
(야오키이와·가마전)
가야부키노미야 터에 사전을 짓고 기비쓰히코를 모신 신사

2 기비의 나카야마 P13
우리를 퇴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비쓰히코가 진을 친 곳

가마전 우리가 땅속 깊이 묻힌 가마전에서는 지금도 '나루카마 제사'가 열리고 있다

야오키이와
기비쓰히코가 우라와 싸움을 할 때 화살을 올려놓은 비위

1 기비쓰히코신사 P15
제신은 오키비쓰히코노미코토이고, 기비국이 비젠·빗쭈·미마사카로 분할되었을 때 비젠 제1공으로 지어졌다. 신겐사 나가레 구조, 노송나무 곁질 지붕, 화장할 주춧돌 등, 사원건축의 자력적 가치와 함께 아름다운 사경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월에 있는 모내기 축제는 가마쿠라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 행사.
정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이치노미야 1043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2 기비의 나카야마 P13
고급집에 '쉬를 정령하는 기비의 나카야마를 따로 두른 듯한 초소타니가와의 맑은 물소리'라고 노래한 산. 기비쓰신사와 기비쓰히코신사를 양쪽에 둔 우아한 모습을 펼쳐고 있다. 해발은 162m, 남평에는 자루사이마 뚝이 있고, 시도 소군인 기비쓰히코노미코토가 잠들어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기비쓰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3 기비쓰신사 P16·P20 P28
(야오키이와·가마전)
오키비쓰히코노미코토를 주신으로 하고 기비 씨 일족의 신도 모시고 있다. 본전 약 264.5㎡, 배전 약 103.4㎡는 일본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 히요쿠리마모 구조의 우아한 건축 양식은 '기비쓰 구조'라고도 하며,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우라 전설에서 우라를 퇴치하라는 조령의 명령을 받은 기비쓰히코노미코토가 진을 친 정소로 알려져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기비쓰 931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4 다테쓰키 유적 P13
전장 약 80m, 원구부 직경 약 40m, 고분시대 이전인 3 세기에는 일본 최대의 야요이 문구로, 철검과 목걸이를 비롯하여 당시 귀족에게 여겨지던 진사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3세기 전반의 최유력자로 알려져 있다. 우라 전설에서는 정상에 있는 5개의 평평한 바위는 우라의 화살을 막기 위한 돌 방패라고 전해지고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히바타·쇼신마치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4분

5 고이쿠이신사 P18
제신은 기비쓰히코노미코토의 신하인 사사모리히코노 미코토와 우라. 닛토쿠 천황이 기비쓰공의 말사 중 하나로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라 전설에서는 잉어로 변해 지스이가와 강으로 도망치는 우라를, 기비쓰히코노미코토는 가야우지가 되어 뒤쫓아가 잡아 먹은 곳이라고 한다.
정소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야베 109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6 야구이노미야 P15
기비쓰신사와 기노성의 직선 거리는 약 10km이고 야구이노미야는 그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비쓰히코노미코토가 쓴 화살과 우라가 던진 바위가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내에 있는 화장할 거석은 '야구이노이와'라고 해서 우라가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다카사카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분

7 아소신사 P22·P23·P26
아소신사가 있는 아소노고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 터가 다수 발굴된 지스이가와 강 유역 일대의 지명. 기비쓰신사와 나루카마 제사 때 사용되는 술을 남용하는 것은 대대로 아소노고의 주물사로 전해져 있어, 우라와 인연이 깊은 철의 마을 아소와 기비쓰신사의 강한 관계를 말해 주고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오쿠사카 96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8 니야아마·도깨비술 P11·P21~23·P26·P30
기노성에 오르는 등산로 옆에 있는 직경 1.8m, 깊이 약 1m의 쇠솥. 우라가 제물을 삶던 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마쿠라시대에 승려 조령이 서민들의 입욕과 사사 제공에 사용했다는 설이 유력. 철의 지역 소자시 아츠의 것으로, 이 일대에 철이 풍부했음을 추측하고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구로우
교통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7분

9 기노성 P11·P13
기노조진(해발 400m)의 산정에 자리한 산성으로, 우라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내는 약 30헥타르로 일본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 성문이 4 개가 있고, 성내에는 식물 저장고로 추정되는 초석 건물 터와 수문, 우물(물을 퍼올리는 곳)도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오쿠사카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8분

10 이와야테라 절·도깨비 돌집 P21
기노성에서 약 3km 북쪽의 연산 일대에 자리한 진언종 사원. 뒷산에 화장암질의 동굴이 있어 '도깨비 돌집'으로 불린다. 우라 전설에 의하면 우라가 살던 곳으로 전해지며, 묘지에 있는 '왕의 묘'는 우라의 동생들은 무덤이 없다는 설도 있다.
정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오쿠사카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25분

관광 정보에 관한 문의 | 모모타로 관광센터 전화: 086-222-2912

역사와 전설이 교차하는

기비지 주변 관광 지도

이야기의 무대뿐만 아니다!
기비지 주변에는
전국적으로 귀중한 고분과 고적,
위인과 관련된 곳 등 볼거리가 가득.
향수 넘치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도 매력입니다.

다카하시가와강



기비지 주변의 추천 관광지



11 빗추 다카마쓰 성지

다카마쓰성은 오다 노부나가의 명을 받은 하시바 히데 요시(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공을 당해 성주 시미즈 무네하루가 함락하면서 함락되었다. 혼마루 터에는 무네하루의 목 무덤이 있고, 지금은 역사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다. 또 공원 내에 자라한 자료관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다카마쓰 558-2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2 사이조이나리

일본 3대 이나리신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기도하는 명사찰. 기비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에 약 1,250년 전 호은 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원이지만 도리이가 있고, 본전은 신궁 형식이라는 '신불융합'의 제사 형태가 허용되고 있으며, '장사 번창, 교통 안전, 학력 증진' 등의 기원을 위해 많은 참배객들이 찾는다.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다카마쓰이나리 712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3 오가타 고안 출생지

오가타 고안(1810~1863년)은 에도시대 후기의 난학자이자 교육자. 빗추 아시모리번의 번사 사에키 고에요리의 3남으로서 아시모리에서 태어나 29세 때의 술업을 운영하면서 난학인 '대기테키사이주쿠'를 오사카에 개설하고 후구자와 유키치, 오무라 마사지로 등 많은 문하생을 길러냈다. 생가 터에 세워진 현학비밀에는 고안의 태출과 머리털이 묻혀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아시모리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4 오미즈엔

구 아시모리번 번주 기도노시타가의 고보리엔슈유 지원 회유식 정원. 연못정원은 단순하게 토지 분할이 되어 있고, 수령 수백 년의 단풍나무와 빗나무, 팽나무가 연못을 둘러싸고, 연못 안에 학섬과 거북섬의 2개 섬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다. 사계절의 썬더로서 벚꽃, 단풍, 그리고 모란꽃 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아시모리 803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5 구 아시모리번 사무라이 주택

아시모리번의 가로였던 스키하라가의 옛 집. 흰 벽의 나가야 문과 흙벽으로 둘러싸인 주택은 현대 일본식 건축의 원형으로 알려진 무가서원 구조. 무가 주택은 메이지유신 후 급속히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은 이 주택은 무가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아시모리 752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6 셋슈 출생지

스님에게 아담 맛고 절의 기둥에 묶여 눈물로 그리움을 그렸다는 일화로 유명한 뛰어난 화승 셋슈는 1420년 빗추 아카하마무라(현 오카야마현 소자시)에서 태어났다. 출생지로 알려진 장소에는 친제 화승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아카하마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3분



17 쓰쿠리야마 고분

고분시대 중기의 거대 전방후원분. 분구의 길이는 일본 전국 제4위이며, 분구에 출입할 수 있는 고분으로는 일본 최대이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발굴 상태이지만, 그 규모로 보아 피장자는 기비 전역을 통괄하던 대수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신조시모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8 센조쿠 장식고분

쓰쿠리야마 고분의 주분에 순서한 사람을 매장한 최대 규모의 배총. 고분 길이 74m의 전방후원분으로,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널방의 앞면에 직효문, 윗면에 건수문 문양이 있다 해서 장식고분이라고 불리며, 거울, 곡옥, 구슬, 도검, 갑옷 투구 등이 출토되었다(일본 전국적으로도 귀중한 석실 장식은 현재 복원 중).

주소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기타구 신조시모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19 빗추 고쿠분 비구니절 터

나라시대에 쇼무 천황의 발원에 의해 축조된 빗추국의 비구니절 터. 사역은 동서 108m, 남북 216m의 규모로, 쓰이지 흙벽으로 둘러싸인 경내에는 남북에서 북쪽으로 남문, 중문, 금당, 강당 등의 건물이 일직선상에 놓인 가람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금당의 초석 등 유구가 아직도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간바야시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4분



20 고모리즈카 고분

6세기 후반에 자연 구릉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장 약 100m의 전방후원분. 내부의 석실은 거석을 이용한 활형석 석실로, 긴 연도와 그 양쪽의 널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널방에는 집 모양의 커다란 석관이 놓여 있다. 석관에 사용된 바위는 이바라시 노가미초에서 생산된 파혈암(괘각석회암).

주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간바야시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21 빗추 고쿠분지 절

진호국가를 기원하기 위해 741년에 쇼무 천황의 기원에 의해 지어진 관사. 오텍담은 남북조시대에 7층탑(높이 50m로 추정)이 소실된 후 1843년경에 위치를 바꾸어 재건(높이 34.32m). 에도시대 후기의 양식이 진하게 남아 있는 오카야마현 내 유일의 오텍담이다.

주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간바야시 1046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22 빗추 고쿠후터

고쿠후란 울릉제 하에 비젠국·빗추국 등 각 지방에 설치된 관청을 말한다. 국도 180호선 '고쿠분지구치' 교차로의 동쪽에 '빗추 고쿠후 유지'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고소미야의 비석이 있다. 빗추 고쿠후의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소'의 지명이 남아 있는 이곳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가나이도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3분



23 쓰쿠리야마 고분

5세기 중반 고분시대 중기에 축조된 고대 기비왕국 대수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전장 약 286m, 후원부 직경 174m, 동 높이 24m, 작은 구릉을 가린 산상 축성 전방후원분. 일본 전국에서는 9위, 오카야마현 내에서는 쓰쿠리야마 고분에 이어 2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주소 오카야마현 소자시 미스
교통 오카야마 소자 IC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기비지의 축제 · 연중행사

- 기비쓰의 사미센 떡 쪼기
기비쓰신사 1월 1일~3일
- 야타테 제례행사
기비쓰신사 1월 3일
- 에비스 축제
기비쓰신사 1월 9일~11일
- 초오제
사이조이나리 3월 첫째 일요일
- 기비지 연꽃 축제
빗추 고쿠분지 절 주변 4월 29일
- 환상의 향연
빗추 고쿠분지 절 경내 5월 초순

- 기비쓰신사의 75선제
기비쓰신사 5월·10월 둘째 일요일
- 미야우치오도리춤(오카야마현 문화제)
기비쓰신사 7월 31일
- 모내기 축제(오카야마현 문화제)
기비쓰코신사 8월 2일~3일
- 오카야마 모모타로 축제
오카야마역 주변 8월 초순
- 소자 시민 축제, 셋슈 페스타
소자지정 주변 8월 초순
- 모닥불 대제
사이조이나리 12월 둘째 일요일과 그 전날

교통 가이드

자동차 이용 시 오카야마 시내까지의 소요시간

- 오사카에서약 2시간 10분
- 히로시마에서약 1시간 50분
- 요나고에서약 1시간 40분
- 고치에서약 2시간 00분

JR 오카야마역까지의 소요시간(노조미 이용)

- 도쿄역에서약 3시간 12분
- 신오사카역에서약 44분
- 히로시마역에서약 34분
- 히카타역에서약 1시간 37분

오카야마공항까지의 소요시간

- 도쿄에서약 1시간 10분
- 서울에서약 1시간 35분
- 상하이에서약 2시간 10분



이 이야기는 ‘아사노 아쓰코 구연동화 『기비쓰히코와 우라~기비국을 만든 운명의 두 사람~』(원작: 아무라 레이코)’를 새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카야마시

(2012.03)